

게리 예이츠 박사, 성서 12서, 9회, 아모스,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개의 촉구, 아모스 3-6장

© 2024 게리 예이츠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소선지서에 관한 강의 시리즈의 Dr. Gary Yates입니다. 9과,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개의 부르심, 아모스 3-6장입니다.

우리는 아모스서를 통해 계속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단원에서 아모스서의 첫 부분인 1-2장에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과 시리아-팔레스타인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섹션의 시작 부분에 있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메시지의 핵심이자 아모스 설교의 핵심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주위의 이교도 백성들을 향해 사자처럼 포효하고 천둥처럼 폭풍처럼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남쪽 왕국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메시지는 이스라엘 왕국에 관한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한두 가지 구체적인 죄가 강조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죄 목록은 길다. 또 그들은 자신들이 주변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이 택하신 백성으로서 그들이 모세 율법의 구체적인 계약과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 더 책임이 크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여덟 번째 메시지인 2장의 끝 부분에 있는 이 구절로 갑니다. 여기에 있는 죄의 목록은 선지자들이 사람들의 행동과 생활 방식과 관련하여 다루는 주요 문제가 그들의 탐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들의 물질주의,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 대한 억압.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 대한 이러한 억압은 부와 소유, 그리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삶의 궁극적인 초점으로 삼을 때 집착하게 되고 그것을 얻기 위해 필사적이 된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만족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궁극적으로 당신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을 찾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가 사람들의 죄에 초점을 맞추자 그들은 이웃의 소유물을 탐내는 방식으로 너무나 난폭하고 억압적이며 절박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아모스는 그들이 은을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신 한 켤레에 가난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를 땅 티끌에 짓밟고 고난당하는 자의 길을 비껴가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자와 그의 아버지가 한 소녀에게 들어가므로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여 모든 제단 곁에 두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재산을 압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여종과 동침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은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동성애, 수간, 근친상간, 같은 여자와 동침하는 아버지와 아들 등 도덕적 타락에 대한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의식적인 금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도덕적으로 악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8절, 모든 제단 곁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워 자기 하나님의 전에서 벌금을 낸 자들의 포도주를 마시느니라.

그들은 이웃을 학대하고 하느님을 숭배하는 것과 양립할 수 없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는 가난한 이웃의 옷을 담보로 잡고 그 빚을 갚으면 매일 밤 그것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영하여 실제로 이 망토를 성소로 가져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팔레트를 만듭니다. 그들은 거기 앉아서 기도하고 희생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법을 위반하고, 이웃을 학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절할 때나 전제를 드릴 때 벌금을 낸 자들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들은 이웃에게서 이것을 받아 여호와 앞에서 기념하고 예배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보라, 나는 너희 역사 전반에 걸쳐 너희에게 신실하였다.

나는 당신을 보호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지켜보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축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이런 종류의 죄와 이런 종류의 부정직함으로 나의 선함을 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모리 족속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같고 그 힘은 상수리나무 같으니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아모리 족속의 땅을 차지하게 한 자는 나니라

나는 당신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노예 생활에서 데리고 나왔다. 나는 가나안 민족들을 쳐부수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갱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이 이에 응당한 방식입니다. 11절, 내가 네 아들 중 몇을 유익을 위하여 키웠느니라.

주님께서서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 그들에게 사자를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대에 걸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또한 나실인들을 위해 그들의 젊은이들 중 일부를 일으키셨습니다. 나실인들은 그들의 서원과 생활 방식에 따라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체와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형태로든 술을 마시거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분리를 상기시키는 상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너희가 나실인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와 그들이 가졌던 특별한 지위를 상기시키기 위해 주신 특별한 백성조차도 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불의의 죄를 살펴보고 이미 이것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듯이, 이것이 왜 기원전 8세기에 특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는지 좀 더 잘 이해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 중 일부는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와 남왕국의 웃시야 통치 기간에 일어났던 번영의 결과였습니다. 군주제와 관료제,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군대, 그에 따른 행정부의 성장은 점점 더 많은 땅이 왕과 그에 연관된 관료제에 의해 삼켜지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왕좌와 함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너희가 왕을 세우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여러분의 세금을 인상할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의 아들과 딸을 데리고 자기 부대 나 군대에 투입할 것입니다. 그 중 일부는 궁극적으로 그들의 땅을 삼키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각 가족, 각 족속이 각자의 땅을 갖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 가족, 그 씨족이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도록 그 땅은 결코 가족에게서 영구적으로 팔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군주제가 그 땅을 삼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일어난 일은 이스라엘의 번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경제 정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을 더욱 번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국경을 확장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국제적으로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다른 민족과의 무역에 참여하여 번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에서 개별 가족과 씨족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농사를 짓는 데 사용되는 땅이 아니라 무역에 필요한 특정 작물을 재배하는 데 땅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IVP 성경 배경 주석에서 존 월튼(John Walton)은 이에 대해 설명합니다.

나는 이것을 읽고 싶다. 이것은 긴 인용문이지만 시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로보암의 길고 효과적인 통치 덕분에 곡물, 올리브기름, 포도주와 같은 수출 품목의 대량 생산에 집중하는 포괄적인 경제 정책을 수립하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세펠라와 저지대의 넓은 지역은 이미 밀 생산에 넘겨졌습니다(대하 26:10). 이제 8세기에 엘리트들은 작은 산간 지방의 농장과 마을에 이러한 경제 정책을 강요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잠재적인 위험을 목축과 농업 사이에 분산시키려는 이전의 농업 정책이 뒤집히고 토지가 특정 환금작물에 넘겨졌습니다. 빛이 과중한 농민들의 소규모 토지는 더 큰 토지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토지의 매우 효율적인 사용으로 인해 이전에 마을 문화에서 재배되었던 혼합 작물이 제거되고 토양이 더 빨리 고갈되었습니다. 밭을 휴경지로 두고 수확된 밭에서 방목하는 동물은 제거되거나 엄격하게 통제되었을 것입니다. 이 새로운 정책에 따라 농민 계급에게는 실질적인 기아 문제가 있는 반면 귀족과 상인 계급은 페니키아 무역 파트너가 공급하는 사치품을 탐닉할 수 있을 정도로 수출을 늘리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밀이나 보리와 같은 생필품 가격 상승에 직면한 것에 더해, 가난한 농민들은 이제 빛을 지거나 노예 생활을 하거나 일용 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가족, 씨족, 마을이 서로를 돌보고 필요한 농작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기를 수 있는 곳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제 그 땅은 환금작물을 재배하는 데 사용되고 있었고 부자들은 이로 인해 혜택을 받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오늘날과 같은 중산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부유한 사람들,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 관료제의 일부인 사람들, 군주와 관련된 사람들, 가난하고 매우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용당하는 사람들이었으며 이러한 특정 정책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발생한 일은 법적 절차의 일부였으며, 빗을 갚기 위한 방법으로 빗 노예제와 토지 매매에 관한 성경적 조항을 오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은 빗진 사람이 6년 동안 빗의 종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일곱째 해에 풀려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빗을 갚기 위해 일시적으로 땅을 팔 수도 있었지만, 그 땅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 가족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부유한 지주들, 이러한 대규모 토지, 아마도 왕의 후원을 받고 현금 작물 재배를 담당한 사람들이 이웃의 빗을 자신의 땅을 빼앗는 구실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변두리에는 꾸준한 농부가 살았기 때문에 수확하는 사람은 특히나 그들을 황폐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회로서 이스라엘의 역할: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시고, 가난한 자가 있으면 기꺼이 손을 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이제 그 땅을 빼앗기 위한 구실로 어떤 종류의 빗이라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생각에 이 사람들은 우리가 부채 노예화와 재산 매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하신 율법의 뜻과 율법의 정신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일은 앗수르인들이 이스라엘과 유다 영토를 침범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세금을 바칠 것을 요구했고, 그 세금에 대한 부담은 종종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과 부유한 관료들이 농작물을 제공하고 조공의 일부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던 땅에서. 8세기에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정의 문제와 정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2장에서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죄를 열거하면서 특히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소선지서와 일반적인 예언서 전반에 걸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생각하게 만드는 이러한 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마음을 다해 나를

사랑하지만, 또한 너희 이웃을 돌보고 그를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3~6장에서는 아모스서의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이 심판이 어떻게, 왜, 언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섹션에서도 볼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책의 두 번째 부분인 3장부터 6장은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3장 1절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4장 1절, 이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의 애가하는 집 에서 너희에게 말길 이 말을 들으라 .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3장, 4장, 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섹션의 세 가지 주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그들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곧 심판을 보내실 것입니다 .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판결은 돌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행하고, 그들의 길을 바꾸고,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나 3장부터 6장까지의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주님의 날을 사모합니다.

히브리어 단어 오이(oy)는 종종 장례식 애도의 일부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지자는 이 메시지의 대상이 메시지를 듣지 않기 때문에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날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 있을진저 그들은 하나님이 사자처럼 부르짖으시고 폭풍처럼 우레같이 부르사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 생각하는도다.

결국 하나님은 사자처럼 부르짖어 그들을 물리치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6장 1절도 마찬가지다. 시온에서 평안한 자들과 사마리아 산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러므로 아모스는 단지 이스라엘과 북왕국과 그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모스는 또한 자신의 백성인 유다 백성에 대한 심판을 설교하며, 궁극적으로 그 심판은 그들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3장부터 6장까지의 이 부분에서 아모스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사람들이 도전하고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지위가 그들을 심판에서 면제시키지는 않습니다.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카드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아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여호와께서 너희, 곧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낸 온 가족을 치려고 하신 이 말을 들어라.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노예 생활에서 꺼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2절에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을 알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벌하리라. 그러므로 그것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걸려 넘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말할 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으니 그들의 특별한 지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영광스러운 지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도출된 결론은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네 모든 원수들에게서 너를 구원하리라는 것이다. 그것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인하여 너희를 벌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서를 관통하는 것 중 하나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심판에서 면제된다는 생각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아모스는 이미 1장과 2장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열국에 임한 심판은 궁극적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에게도 임합니다.

그는 이 점을 이스라엘이 단순히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실에만 의존하여 그들이 이로부터 면제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여러 다른 장소로 만들 것입니다. 3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스돗에 있는 요새들에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과 이집트 땅에 있는 요새들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알겠습니다. 외국인을 여기로 데려오겠습니다'라고 말하세요.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을 데려올 예정입니다. 우리는 이집트인들을 데려올 예정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가운데서 큰 소동과 그 가운데서 압제받는 자들을 보라.

자기 요새에 강포와 강탈을 쌓는 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 옳은 일 행할 줄을 알지 못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선지자가 하는 일은 블레셋 애굽 사람들을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는 “너희는 악의 실제 예를 보고 싶느냐?”고 말합니다. R등급 영화를 보고 당신을 놀라게 할 폭력과 억압을 보고 싶나요? 나는 여러분이 앉아서 사마리아 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악함으로부터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지위에 도전합니다. 6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온에서 평안히 쉬는 자들과 사마리아 산에서 평안함을 느끼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자, 이제 선지자는 2절에서 갈네로 건너가서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왕국들보다 나은 것이 있느냐? 아니면 그들의 영토가 당신의 영토보다 넓습니까? 오, 재난의 날을 멀리하시고 바다에 폭력을 가까이 하게 하시는 분이시여. 비록 당신이 부와 번영 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당신의 부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아시리아의 침략과 침략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당신도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닥친 동일한 문제, 동일한 역경, 동일한 파괴가 궁극적으로 당신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진 부와 번영은 당신을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9장 7절부터 10절에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아모스의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백성으로 삼으셨는지에 대한 전통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는 나와 구스 사람과 같지 아니하냐 너희도 구스 사람들과 다르지 아니하니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지 아니하였느냐 대답은 '예'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위대한 구원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형성하셨고 우리를 한 백성으로 만드셨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러나 아모스가 그 전통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보십시오. 그가 말하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갓돌에서, 시리아 사람을 길에서 데려오지 아니하였느냐 보세요, 당신은 이것이 뭔가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이 땅으로 이주하는 것은 내가 갓돌에서 블레셋 사람을 인도하고 길에서 시리아 사람을 인도하여 오는 것과 다름이 없느니라.

바로 이민입니다. 그것은 출애굽의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은 배를 타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주 여호와와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라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을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래서 당신은 출애굽이 아주 좋은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빛나는 구원의 본보기였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아모스는 단순히 주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것과 같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다른 민족들의 이민과 같은 범주에 넣습니다.

그 결과, 만일 사람들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방 민족들처럼 그들에게도 임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그들은 더 나올 것도 없고 다르지도 않을 것이며 결국에는 방식이 바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모스가 그들에게 주려고 하는 경고의 심각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으로 돌아옵니다.

주님은 아모스를 통해 내가 아는 가족은 너희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당신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벌할 것이다.

우리는 일련의 수사학적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아모스서에는 또 다른 7주기가 있는데, 이 모든 수사학적 질문에는 답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수사학적 질문은 질문을 할 때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말하는 동안 그 사람이 생각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학적 질문 각각은 이스라엘에게 아모스가 그들에게 주는 경고의 심각성을 숙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만약 선지자가 여기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있다면 그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사학적 질문 각각에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일어나는 결과가 있지만, 그에 따른 결과인 원인이 있습니다.

아모스가 그들이 볼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은 한 사람이 그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이 효과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임박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임할 심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부터 무해하게 시작합니다. 3절은 좋은 예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기로 합의하지 않은 이상 함께 걷지 마십시오. 함께 걷는다면 그 만남은 미리 정해 놓았습니다. 일종의 무해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음 수사학적 질문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들어보세요. 사자가 먹이가 없는데 숲에서 포효합니까?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굴에서 부르짖겠느냐? 돌 다에 대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사자의 포효는 먹이를 낚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지자가 선포할 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포효하시는 것은 비참한 일이 곧 일어날 것임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5절에서 또 다른 불길한 일련의 질문을 받습니다. 덧이 없는데 새가 땅 위의 올무에 떨어지겠느냐?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데 올무가 땅에서 솟아오르겠느냐?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동물들이 먹이와 꿀로 잡혀가면 곧 일어날 재앙적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함정이 우연히 거기에 있는 걸까요? 아니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정확히 일어날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6절에 보면, 성읍에서 나팔이 불는데 백성이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대답은 아니오 야.

트럼펫 소리가 비상 방송 시스템임을 알렸습니다. 적군이 오고 있고, 재난이 일어나고 있으며, 뭔가가 지평선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방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선지자의 메시지는 성읍에 불어오는 나팔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면 어찌 성읍에 재앙이 임하겠느냐고 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국가적 좌절이나 불행이 연속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히 이런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제 저는 그 말씀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면 어찌 성읍에 재앙이 임하겠느냐? 나는 우리가 그 진술에 너무 많은 것을 넣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발생하는 모든 재난의 직접적인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이는 특정 상황, 특정 시나리오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앞으로 일어날 비극과 재앙에 대해 경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비밀을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사자가 포효했습니다.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모스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단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내 의견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이것을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어서 남왕국 유다에서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데려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곧 여러분을 삼킬 것이기 때문에 일어날 사자의 포효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섹션 전체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사자의 포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미가가 전하는 말을 듣고 '너희는 이런 것을 전하지 말라'고 반응할 것입니다.

재난은 우리에게 닥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아모스와 미가, 그리고 다른 많은 주님의 참된 선지자들의 문제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 줄 다른 선지자들이 항상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약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약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돌보십니다. 언약에 대한

성경적 이해는 언약이 항상 약속과 의무를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약의 축복을 경험하고 싶다면, 언약에는 특정한 책임도 따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 일어날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려고 준비하고 계신 심판에 대한 여러 가지 경고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아모스의 임무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인간의 언어로 전달하고 이 심판을 가능한 한 끔찍하고 끔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극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충분히 나쁘다면 아마 이 사람들이 들을 것이라는 방식으로 전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 아마도 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그냥 무시하는 대신, 어쩌면 우리가 이미 다 들어본 적이 있다고 말하는 대신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고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우리에게 이 말을 해왔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곧 그들에게 임할 메시지를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어야 할 두려움을 듣기를 원합니다.

유다 백성에게 설교한 예레미야는 나중에 죽음이 창밖으로 기어오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아모스가 말한 것을 요약하는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두 다리와 귀 한 조각을 건져냄 같이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자손도 침상 모퉁이와 귀 한 조각만 건져내리라 침대.

남은 것이 아무리 많아도 별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3장 15절, 내가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아궁들이 파멸되며 큰 궁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 이 거대한 부지를 건설하기 위해 이웃 사람들을 약탈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살지 않을 것입니다. 4장 1절,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기억하세요, 그들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부유한 여자들이며,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압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실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하심으로 맹세하시되 보라 날이 이르면 너희를 갈고리로 사로잡을 것이며 너희의 마지막 사람도 낚시로 사로잡을 것이다. 아시리아인들은 실제로 포로들의 입에 갈고리를 꿰어 유인하는 관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산의 살찐 소들이 사치스럽게 쉬고 사치의 품에서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자기들만 걱정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결국 그들은 타락하여 유배되어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갈고리를 입에 물고 이 왕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보다 더 치욕적인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싶어지게 될 것입니다. 5장 16절과 17절은 죽음이 창문을 통해 기어오르는 것에 대해 나중에 예레미야가 경고한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현실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로보암 치하에서 이 큰 번영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곧 바뀔 것입니다. 5장 16절,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모든 광장에서는 통곡하며 모든 거리에서는 슬프다, 슬프다 하리라.

그들이 농부들을 불러 애곡하며 통곡하게 하리라. 그리고 모든 포도원에서 통곡이 터질 것이다.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시다시피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애굽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가운데로 지나가셨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로 지나가시며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6장 9절과 10절, 그 후유증이 나옵니다. 앗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오면 앗시리아인들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은 이런 일을 가져올 것입니다.

6장 9절과 10절에서 죽음은 다시 이 그림의 일부이며 매우 생생합니다. 10절에 “한 집에 열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맹공격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은 10명의 사람들이 죽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친족, 곧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장사하게 하는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가려고 그를 데리고 올라가서 그에게 묻되 집 안에 누가 있느냐 하리니 생존자로서 그 집에 들어가서 시체를 치워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집 안에 있는 희생자 중 한 사람이 되는 것이 거의 더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아직도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아니, 아무도 남지 않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침묵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당연하게 여기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은 언급도 하지 말라는 생각을 하고 나면 그 자리에 오게 됩니다. 이번 심판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비밀로 합시다.

이것이 바로 이번 최후의 심판이 얼마나 끔찍하고 끔찍할 것인가입니다. 6장 14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한 족속을 일으켜 너희를 대적하게 하리라 주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다시, 만군의 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계신 전사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르바 시내까지 너를 압박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그 말을 가능한 한 나쁘게 말하며, 실제로는 끔찍하고 끔찍할 만큼 말하여, 만일 그들이 들으면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모스 3장부터 6장까지는 심판 신학과 관련된 몇 가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 구절을 살펴보았지만 아모스 4장 6절부터 11절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경고한 언약의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를 깨끗하게 하시고 빵이 부족함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음식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를 내리지 않으셔서 여러분이 풍년을 거두는 데 필요한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농작물을 마름병과 곰팡이로 치셨습니다.

네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가 메뚜기 떼에게 먹혔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경고하신 모든 것입니다. 내가 이집트 땅 이후에 너희 가운데 역병을 보냈다.

나는 칼로 너희 젊은이들을 죽이고 너희 말들을 빼앗아 갔다. 나는 당신의 캠프에 악취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양한 형태의 군사적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이 일이 일어나기까지의 시기에 아람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의 갈등에서 종종 그것을 봅니다. 앗수르인들은 9세기에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었고, 예후는 기원전 841년에 그들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그 일은 더욱 강렬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멸망시켰느니라. 사람들이 이미 그런 일을 경험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관심을 끌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모스서에 4장 6절, 8절, 9절, 10절, 11절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낼 수 있는 모든 모닝콜을 당신에게 보냈는데 당신은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언약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내용의 정점인 4장 12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은 이 모든 일을 나는 행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12장 4절,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이같이 행하리니 이는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할 것임이라.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좋아요.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고향에서 거의 매주 차를 몰고 지나가곤 했던 표지판을 기억하지 않고서는 그 구절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교회는 교회의 위치와 교회 예배를 알리기 위해 여러분의 모임을 준비하는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제일침례교회로 오세요. 좋아요. 이것은 당신이 경험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으르렁거리는 사자이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천둥 같은 폭풍이십니다. 그들은 언약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하나님을 준비하고 만난다는 개념인 준비하다라는 동사 qun 과 전치사 la there가 있는 동사 qara 인 동사 liqara가 사용됩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이 불과 연기와 천둥 가운데로 강림하실 때에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고 있었더라.

그들은 모세가 정한 지경을 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만나신 대로 하나님께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 때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실 때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언약에 비추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궁극적인 언약의 저주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닥칠 심판과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군사적 패배를 볼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의 저주를 행하실 것임을 이해합니다.

기원전 8세기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은 또 다른 구절은 아모스가 아모스 5장 18절부터 20절에서 이것을 주님의 다가오는 날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은 다시 여호와와 날이 어떠할 것이며 여호와와 날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한 이스라엘의 기대와 이해를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와 날을 사모하는 너희여 어찌하여 여호와와 날이 되려느냐 이는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라” 또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므로 여호와와 날이 이를 줄 믿었느니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려와 그들의 원수들을 멸하실 때일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앓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모스는 “주의하라 주의 날에 대한 너희의 기대는 다 그릇되니 주의 날은 구원의 날이 되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처럼 기대해야 할 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에 걸쳐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를 대신하여 싸우실 거룩한 전쟁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힘이 없었을 때에 바로를 위하여 그들을 바다에 빠뜨렸느니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그분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성벽 주위를 돌며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다윗이 대적들과 싸우러 나갔을 때 그들은 나무들 사이로 행군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곤 했습니다.

여호사밧 시대에 제가 역대기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싸움에 들어가라 제사장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이 너를 인도하게 되고 네가 노래하여 대적을 멸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전쟁을 치르셨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이스라엘의 성전 전통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주의 날 전통을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하루 만에 원수를 멸하셨을 때, 그들은 그 전통을 뒤집어 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원수로 삼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구 팬으로서 저는 가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경기를 하다가 갑자기 FA가 된다는 사실을 떠올립니다. 다음에 그가 당신의 팀과 경기할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유니폼을 입고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그 플레이어에 대한 애정이 적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계약자가 되셨고, 이제 하나님은 다른 유니폼을 입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제복을 입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앗수르의 제복을 입고 계시며, 이 일을 변덕스럽게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단순히 분노를 표출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기 위해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잊어버린 것은 그들의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께서 배도의 시대에 그들을 바로잡고 그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그분의 백성에게 군사적 패배의 심판을 내리셨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에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패했습니다. 그들은 해결책은 단지 여호와와 의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의 원수들을 물리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전투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패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나중에 하나님은 다곤의 신들을 물리쳐 자신이 그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것은 비록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는 사자처럼 그들을 칠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상기시켜 준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그의 배도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이 범한 죄에 대해 그들을 벌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그의 아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다윗 가문은 왕국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현실이었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의지하여 여호와와 성전, 여호와와 성전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시 사무엘 시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실로 성은 성소가 있던 곳이었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곳이었는 데, 실로 성이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시가 그분의 성소라는 이유만으로 그 도시를 보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일이 잠재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부터 6장까지는 군사적 패배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은 언약의 저주이다. 지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때이며, 이스라엘이 곧 그들을 향하여 여호와와 날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에 대한 무서운 경고 가운데서도 이러한 심판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는 선지자도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은 돌로 굳힌 것이 아니라 스크루지에게 다가올 일의 그림자를 경고하는 크리스마스 캐럴 속 크리스마스 미래의 유령처럼, 그가 개혁하고 자신의 길을 바꾸면 다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미래의 그림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길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5장에는 이러한 긴급한 호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12장의 주요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호세아와 아모스와 요엘의 서두에서 그것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회개를 부르시는 곳까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이 말씀의 중심에 나를 구하여 살되 벤엘을 구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건너가지 말라 길같은 정녕 사로잡혀 가고 뱀엘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니라

당신의 성소는 당신을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당신의 생활 방식을 바꾸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그가 불 같이 요셉의 집에 터져 삼켜 뱀엘을 위하여 끝 자가 없게 될까 하노라 5장 14절 너희가 살기 위하여 악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말대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 혹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의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하노라.

5장 23절과 24절 네 노래의 소음을 내게서 그치라 네 비파의 선율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라 공의가 물 같이 흐르고 공의가 흐르는 시내 같이 흐르게 하소서 그러므로 3~6장에서 보아야 할 것은 이러한 무서운 심판의 경고와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긴급한 간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대와 현대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아모스 3장부터 6장까지 읽은 끔찍한 내용을 보고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아요, 그래서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이것이 내가 구약의 하나님께 끌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분은 진노하시고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이면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의 실체를 봅니다. 그분은 헤세드의 하나님, 언약의 신실함, 긍휼, 더디 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이 시점에서 그들이 수백 년 동안 그를 분노케 했고 그들의 언약 위반이 그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여전히 회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여호와께서는 “내가 나의 헤세드와 나의 언약의 신실함을 천 대까지 보이리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조상의 죄악을 셋째, 넷째까지 보웁니다.

주님은 삼사 때까지 심판하실 수 있지만, 그분의 언약의 신실함,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긍휼,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성품은 구약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일으키신 이유는 사자가 울부짖어 자기 백성에게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거룩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며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누구도 멸망되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과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여기 아모스 3장부터 6장까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의 촉구와 선지자의 경고에서 그것을 봅니다.

이것은 소선지서에 관한 강의 시리즈의 Dr. Gary Yates입니다. 9과,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개의 부르심, 아모스 3-6장입니다.